

# 쑥쑥 크는 광주 게임산업...코로나 불황도 없다

###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지원·유치 66개사 올 매출 100억 넘어설 듯 올 '광주산 게임' 7개 탄생시켜 NHN과 게임플랫폼 지원 협약도

광주 게임 개발사 '레인디어게임즈' 김영우(26) 대표는 전남대학교 게임개발 동아리 'PIMM'에서 활동하며 광주글로벌게임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김 대표는 예비 게임 창업자를 키워내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인디스타즈 5기'로 활동하며 '시장 창출형 게임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참여하며 게임시장 진출을 위한 멘토링을 받았다.

올해 4명을 고용하며 어엿한 신생기업으로 거듭난 '레인디어게임즈'는 보물 사냥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임 '태그 헌터'를 내년 말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성(39) 이사·김도현(29) 대표가 이끄는 ㈜지니소프트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있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에서 실감게임 '조선준비디펜스'를 연말 출시할 계획으로,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의 뒤를 잇는 'K-좀비' 흥행을 이어간다는 포부를 펼치고 있다.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홍보 영상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넷플릭스로부터 자체 제작 영상물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러브콜'이 들어온 상태다.

지니소프트의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실감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기술력은 중국에서 먼저 알아봤다. VR게임 '비트스매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국에서 2000대 넘게 보급됐다. 오는 2025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디스타즈 6기' 참가자들이 개발한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년까지는 150억원 상당 투자유치를 벌여 대규모 다중사용자 게임(MMORPG)으로도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게임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게임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광주에서도 차츰 개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올해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 지원한 기업들의 매출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글로벌게임

센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센터가 지원하거나 유치한 66개사의 매출은 76억6000만원으로, 전년 매출(73억원)보다 5%(3억6000만원) 증가했다.

기업 정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올해 매출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 이는 당초 목표의 104%를 달성한 수치다.

올해 센터가 지원한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100개에 달한다. 지난해 고용 효과(95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 5대 전략 콘텐츠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산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를 장

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 기업 42%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매출 역시 86%가 편중된 탓에 그동안 광주 업체가 설 자리는 많지 않았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전일빌딩245에 7개사가 게임 개발과 실증을 할 장비를 갖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올해 6기를 맞은 '인디스타즈'를 운영하며 광주 게임산업 육성 거점을 만들고 있다.

올해 인디스타즈에는 7개팀 28명이 참가해 8개월 동안 게임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인디스타즈 1기' 출신 박상우(29) 대표가 이끄는 사우스포게임즈의 인디게임 '스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연초 출시된 뒤 100만장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 인디스타즈는 '광주산 게임' 7개를 탄생시켰고 이 가운데 창업기업 2개사(커피캣, 이그노스트)도 배출했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신규 창업한 게임 기업은 올해 5개사이다. 광주로 유치한 기업도 5개사이다.

지난 5월에는 NHN과 업무협약을 맺고 3000만원 상당 클라우드 기반 게임플랫폼 서비스를 광주 기업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성과공유회'를 열고 인디스타즈 6기가 만들어낸 게임을 선보였다. 또 우수 3개팀(이그노스트·프리키즈·카운터테러)을 시상하고, 15개사가 참가한 '광주 게임 오디션' 3개팀(이그노스트·일일이 주식회사·㈜비비소프트)도 선정했다.

탁용석 원장은 "광주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욱 더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광주로 모여 개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보 탄소중립 주간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진행

광주신보보존재단이탄소중립주간(6-10일)을 맞아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탄소중립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고 캠페인'은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자문서 보고를 늘리거나 다화용기 사용을 늘리자는 캠페인이다.

'올리고 캠페인'에는 ▲전자문서 보고 늘리기 ▲모아찍기 일상화 ▲흑백인쇄 일상화 ▲이면지 활용 늘리기 ▲개인용기 사용 늘리기 ▲개인 손수건 사용 일상화 ▲장바구니 사용 일상화 등이 있다. '내리고'는 ▲불필요한 대면보고 줄이기 ▲회의자료 최소화 ▲클립인쇄 줄이기 ▲종이 소비 최소화 ▲일회용품 줄이기 ▲물티슈 사용 줄이기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생활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광주 공동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충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공공기관 처음 글로벌 환경 협정 가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환경 협정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가 가입한 협정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이다. 이 협정은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SBTi는 세계자연기금(WWF), 탄소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compact(UNGC), 세계자연연구소(WRI)가 공동 운영한다. 현재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친환경·저탄소 농수산식품 생산 지원 ▲로컬푸드 및 온라인 거래 확산, 식량 자급률 제고를 통한 먹거리 운송거리 축소 ▲비축농산물 폐기 관리 등 고유사업을 벌인다. 오는 2050년까지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수립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29.57 (+27.77)
↑ 코스닥	1022.87 (+16.83)
↓ 금리(국고채 3년)	1.794 (+0.037)
↓ 환율(USD)	1174.50 (-1.40)

## '절대반지 개인형IRP! 절세원정대'

### 광주은행 연말정산 시즌 맞아 가입고객 대상 푸짐한 경품행사

광주은행이 연말 정산 시기를 맞아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경품 행사를 벌인다.

행사는 '절대반지 개인형IRP! 절세원정대'이다.

개인형IRP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퇴직금수령(예정)자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상품이다.

연말 정산 때 납입한도 700만원(만50세 이상은 2023년까지 최대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품 행사는 '신규 여정' '경험치 업(UP)

여정' '레벨업 여정' 등으로 나뉜다.

개인형 IRP를 새로 시작하고 매달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거나 타사 개인형 IRP를 광주은행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 운용 중인 상품을 펀드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변경하면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 100명에게는 통닭 세트가 주어진다.

행사 참가자 가운데 3명에게는 황금열쇠(10g), 12명에게는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영수 신탁연금부장은 "고객의 슬기로운 은퇴생활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노후자금 준비와 절세 혜택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든든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수협·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내년 6월1일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항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공포 일정과 6개월 경과 시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그 대상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항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

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은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상황에 해당한다.

우선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다. 무직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도 해당한다.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